

열린 마당

통일 준비

시론

가정윤리 회복의 길

마음의 분단부터 혈자

사설

조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종교적 평화교류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김대중통일부총리는 2월10일 관훈클럽토론회 초청연사로 참석하여 "종교·학술·문화·체육분야의 남북교류는 실현가능성과 남북관계 상합을 고려하여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남북평화공존 교류체제는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합의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북평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12월13일 상봉그룹 이주본부장 등 12명이 시멘트공정건설을 위하여 방북한 이래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방북하여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2월7일인 국제민간선단체인 '국제선명회'를 통하여 불교 등 한국 6대 종교단체가 북한에 양곡보내기사업 추진을 위해 모였고, 북한도 그 보답으로 쌀과 목재들을 남한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한다. 또한 북한은 4월말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 5천명 이내의 남한 사람들을 선별 초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4월 평양축전에 형식적으로는 '평양축전 참가를 원하는 모든 남한사람'을 초청대상으로 하고, 사실상으로는 남한에서 방북신청을 할 수 있는 초청장이나 방북비자에 갈음할 여행카드발급과정을 통해 전한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통일원은 종교문화인의 방북카드를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문화인의 남북교류를 앞두고 불교계는 지난날의 통일운동을 돌이켜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50년간의 남북분단 시대동안 남북불자들이 두드러지게 한 일

은 1991년 11월 미국 LA에서 남북불교지도자 70명이 모여 통일법회를 한 것이며, 현재 한국불교계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남북교류추진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통일열린 남북불교순례단 등 몇몇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 기초위에서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마음의 분단이 국토의 분단을 가져왔으므로 마음의 분단선을 허물고 부처님의 대지대비와 화쟁 중도사상에 터잡아 남북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제사상이 부처님의 중도(中道)사상을 중심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하여 융합되도록 해야 남북해의 8천만 민족의 화합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북쪽의 불교는 질·량(質·量) 양면에서 있어 남쪽에 비해 대단히 취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여 북으로 하여금 흡수통일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며 정치경제적 이해를 떠나야 한다.

그런 후에 보살도 실천의 차원에서 동포애를 회복하여 인본적 사랑의 나눔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만이 분단과 불신을 딛고 서로가 신뢰를 쌓아 통일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셋째 우리 불자들은 모두 통일보살로서 남북상호방문 불교문화행사공동 개최, 불경보내기운동, 불교학술상호 답사, 남북명산대할순례 합동제, 유등제 등을 통하여 민주통일정토구현에 앞장서되, 남북 통일운동관계 불자들은 서로 통일운동협력기구를 만들어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하여 새역사창조에 나서야 하겠다.

전문가 의견



정천구

종교인을 비롯 기업인, 학자, 문화예술인 등의 방북이 보다 폭넓게 허용되면 불교계의 통일운동과 대북포교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계는 이제까지 펼쳐왔던 통일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적극적인 통일운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통일운동의 목표를 확고히 정립하는 일이다. 이땅에 사는 불자들의 당면 과제는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일된 불국정토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북불교단체간의 만남을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김일성유일사상 체제 속에 있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이런 만남을 불심을 연결하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민족의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 환경, 복지, 인권 등 민족적,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함께 부처님께 발원하고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전담기구 마련, 공동사업 펴도록 다양한 보시운동 통일지름길

북한 동포가 모두 부처님 정법에 의해 달라져야 한다. 그레아 남북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이 땅에 통일된 불국정토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대북포교와 통일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각 종단내 북한포교 및 통일운동을 전담하는 공식기구를 마련하고, 이러한 기구들과 재가 불교단체들의 유사한 기구들을 망라한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교의 대상이며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관한 불교계 자체의 깊이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북불교단체간의 만남을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김일성유일사상 체제 속에 있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이런 만남을 불심을 연결하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민족의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 환경, 복지, 인권 등 민족적,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함께 부처님께 발원하고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일지로 본 불교통일운동

'남북통일을 하루 속히 원만하게 성취하도록 해주십시오' 전국 각 사찰에서는 조석예불 때 이렇게 간절한 민족통일 염원을 발원한다.

이런 모든 불교도들의 통일염원의지를 담고 진행했던 불교통일운동을 일지로 묶었다.

△88.7. 기대원 스님 최초로 북한방문, 그후 2차에 걸쳐 평양에 갔다.

△90. 2. 종단협과 통일염원 정동미 특대불 조성위원회는 법주사 미륵대불 회향법회에 북한불자를 초청키 위해 법타스님 파견(법타스님 '중의에 서서' 책자 발간)

91년 LA서 최초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 △90.

7. 종단협은 8월중 남북 불교대표자회담 개최 제의. 동시에 북한의 불교문화재 발굴·지원을 위한 방북하고 세계불교도대회,한강연등제 등에 북한 불교도 초청 했으나 무응답.

△90. 9. 한국교수불자연합회,대한불교청년회 등 5개 불교단체는 '통일염원 북한불교순례단 추진위원회'의 방북을 위해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신청서 제출.

△91. 4. 한민족불교교류추진 미주불교협회 회도안·법타스님은 북한을 방

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과 남북한 불교교류에 관해 논의(법타스님, 북한의 절과 불교에 관한 '북한 불교 답사기' 발간)

△91.10. 남북한 및 해외동포 불교지도자 50여명이 미국 LA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만나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 개최(법타스님, '남북불교 교류와 전망' 논문 기고)

△92. 2.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경남협)창립.

△92.7. 통일협은 108인 북한방문단을 결성, 방북을 추진했으나 정부 허가 불허로 무산.

△92. 9. 종단협은 10월에 개최되는 동북아 불교지도자 평화회의에 북한대표 표를 초청키로 하고 통

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신청 허가 받음(조불련의 불참으로 남북 불교교류는 무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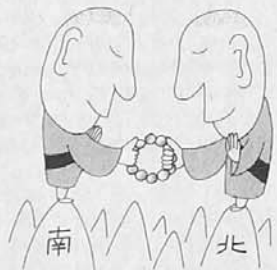
△92. 9. 광복협 미주본부 창립. 미국 LA. 달마사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재미교포불자의 통일사업 참여 및 북한바로일기운동을 전개키로 함.

△93.10. 실천승가회는 '제1회 민족통일을 위한 불자 한마당' 개최.

△94. 2.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출간한 '판단대장경 해제' 전 15권 4권3책집 도입 결정.

현대만평

박구원



하나의 불심으로 나라를 ...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

얼마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94년 한 해동안 발생한 기아와 미아 등 요보호 아동수는 6천2백78명으로 93년도 4천4백51명에 비해 41%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 책임이 그만큼 회박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94년 한해동안 하루 평균 8.7명의 기아가 발생했고 이중 미혼모가 버린 아동이 하루 4.9명이며 가솔아 역시 하루 평균 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배나 증가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와 '가정을 버리는' 아동이 함께 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가정은 어린이에게도 그다지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향을 드러내 보여준다. 어린이 역시 가난하고 힘겨운 가정이라면 미련없이 버린다는 것이다. 가정은 인간 삶의 최소단위 공동체이며 기



김정자

(문화일보 논설위원)

결혼보다 이혼이 더 많은 시대를 유람은 맞고 있다. 이는 핵가족마저 왜락추는 때문에 분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한국에도 해마다 독신가정이 늘고 이혼건수는 불어난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 그 수치는 미미하다 해도 미래 가정의 어떤 조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이같은 풍토를 부추기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학자들은 첫째 요인으로 산업사회의 이행에서 생기는 극단의 개인주의를 든다. 사람의 손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문명의 이기들도 가족을 분리시키는데 한몫을 한다. 사람보다 기계가 더 편리하게 개인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 부모자식간 갈등을 적나라하게 다루는 각종 매체들도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들간을 이어주는 사랑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신을 사랑한다는 어떤 사람이 수행자 라마 누자를 찾아가서 신을 사랑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그대는 누구를 사랑해 본적이 있는가",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어서 이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신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다. 신에 이르는 길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 몫이다.

절에 가서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百年 貪物一朝塵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 사찰과 부처님과 불교 -

부처사 조신 송관일·간주 / 청남 권영환·저음

- 스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 부처님께 예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각 건물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많은 부처님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 도량의 권속들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 벽화나 탱화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三日修心千載寶

늘 공해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와 여유를 찾아 산으로 떠나보십시오. 울창한 숲과 오묘한 바위, 우아한 계곡과 산능선, 그윽한 풀과 나무 냄새,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을 찾는 사람은 꼭 절을 찾게 됩니다. 절은 산속에서도 가장 경치 좋고 터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이 곧 절이고 절이 바로 산입니다. 결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 들어오는 여러 건물과 불상, 탑과 벽화들을 무심코 지나치게 됩니다. 또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의 참모습과 의미를 살피지 못하고 그냥 떠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놓쳐 버렸던 불은(佛恩)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울림러 / 376면 / 값 15,000원